



동북아 5개국 자치단체 교류협력 본격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 호텔에서 동북아시아지역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동북아시아지역 지자체 공동발전 교류·협력 ‘한자리’

5개국 41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공무원 참석
‘NEAR 실무자워크숍’ 성료
서약서원 선비 체험도 가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경주현대호텔에서 동북아시아지역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24일은 서약서원 선비체험을 통해 전통상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의 미를 한껏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25일은 실무자워크숍의 주된 행사로써 2018년 NEAR의 주요 성과와 2019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사하공화국은 잠재적이고 거대한 천

연자연 관광지가 풍부해 세계 각 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인 ‘아쿠티아의 다이아몬드 주간’ 투어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NEAR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NEAR 회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협력·교류 ‘본격화’

2019 NEAR 실무자워크숍 개최 5개국 담당공무원 100여명 참석 공동 발전 위한 ‘벤치마킹의 장’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북아시아지역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

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 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이번 NEAR 실무자워크숍 첫날인 24일에는 서약서원 선비체험을 통해 전통의상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의미를 한껏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25일은 실무자워크숍의 주된 행사로써 2018년 NEAR의 주요 성

과와 2019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사하공화국은 잠재적이고 거대한 천연자연 관광지가 풍부해 세계 각 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인 ‘아쿠티아의 다이아몬드 주간’ 투어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진 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NEAR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NEAR 회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용진 기자syj@hanmail.net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경주서 돈독한 우호협력

NEAR 실무자워크숍 '성황'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북아시아지역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

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간의 공동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첫날인 24일에는 서약서원 선비체험을 통해 전통의상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의 미를, 이튿날인 25일은 실무자워크숍의 주된 행사로써 2018년 NEAR의 주요 성과와 2019년 업무계획 소개로 진행됐다.

사하공화국은 잠재적이고 거대한 천

연자연 관광지가 풍부해 세계 각 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인 '아쿠티아의 다이아몬드 주간' 투어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NEAR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NEAR 회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말했다.

이종팔·김경철 기자



경북도, 동북아시아자치단체 교류·협력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북아시아지역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첫날인 24일에는 서약서원 선비체험을 통해 전통의상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의 미를 한껏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25일은 실무자워크숍의 주된 행사로써 2018년 NEAR의 주요 성과와 2019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사하공화국은 잠재적이고 거대한 천연 자원 관광지가 풍부하여 세계 각 국으

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인 '아쿠티아의 다이아몬드 주간'투어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NEAR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NEAR 회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병화 선임기자

동북아시아자치단체, 교류·협력 본격화

5개국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실무자워크숍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지역 5개국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첫날인 24일에는 서약서원 선비체험을 통해 전통의상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의 미를 한껏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25일은 실무자워크숍의 주된 행사로써 2018년 NEAR의 주요 성과와 2019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사하공화국은 잠재적이고 거대한 천연자연 관광지가 풍부하여 세계 각 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인 '아쿠티아의 다이아몬드 주간'투어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북



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NEAR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NEAR 회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종훈기자

동북아시아자치단체, 교류·협력 본격화

5개국 NEAR 실무자워크숍 개최 “정세 변화 대응 신뢰 형성 기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달 24일 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첫날인 24일에는 서약서원 선비체험



을 통해 전통의상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의 미를 한껏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25일은 실무자워크숍의 주된 행사로써 2018년 NEAR의 주요 성과와 2019년 업무계획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하공화국은 잠재적이고 거대한 천연자연 관광지가 풍부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인 ‘아쿠티아의 다이아몬드 주간’ 투어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NEAR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NEAR 회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日刊경북신문

2019년 05월 01일 수요일 001면 종합

동북아시아자치단체, 교류·협력 본격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자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첫날인 24일에는 서약서원 선비체험을 통해 전통의상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의 미를 한껏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25일은 실무자워크숍의 주된 행사로써 2018년 NEAR의 주요 성과와 2019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사하공화국은 잠재적이고 거대한 천연자연 관광지가 풍부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인 ‘아쿠티아의 다이아몬드 주간’ 투어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NEAR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NEAR 회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 말했다. 강성화기자



동북아시아자치단체, 교류·협력 본격화

5개국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0여명 참석...실무자워크숍 가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동북아시아지역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41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NEAR 실무자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NEAR 실무자워크숍은 회원단체간 교류와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행정 및 실무경험을 소개·공유하는 등 각 지

자체간의 공동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장으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첫날인 24일에는 서악서원 선비체험을 통해 전통의상체험 등 우리 전통문화의 미를 한껏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25일은 실무자워크숍의 주된 행사로써 2018년 NEAR의 주요 성과와 2019년 업무계획을 소개했다.

사하공화국은 잠재적이고 거대한 천연자원 관광지가 풍부해 세계 각 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관광객 위주의 프로그램인 '아쿠티아의 다이아몬드 주간' 투어를 시행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빠

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공동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NEAR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NEAR 회원단체 상호간의 신뢰와 우호의 협력관계를 돈독히 형성해 나가길 기대한다"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성용 기자